

새로운 세터 문화의 형성을 위해

[세터 반성폭력 내규의 개정]

세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세터)는 신입생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대학생활을 함께 할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터는 새내기들의 4년간 대학생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터에서 새내기들은 '성폭력'을 가장 먼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처음 만나는 선배와 후배의 어색함과 남학우와 여학우의 어색함(남고와 여고가 아직도 많은 실정에서)을 없애고 서로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성폭력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서로를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술자리나 게임들이 이미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단지 물리적 강제를 사용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 사회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터 반성폭력 내규'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불쾌감과 피해를 드러낼 수 없는(처음부터 '찍히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새내기들이 내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제기가 보다 용이하게 함에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여학우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문화-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적인-를 함께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세터 내규의 제정과 시행

세터 반성폭력 내규는 2000년에 제정이 되었다. 당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학칙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 자체를 바꾸어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치규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세터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되었다. 학생사회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담론의 형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생사회 내부의 자치적인 해결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터 반성폭력 내규는, 학생사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학생 자치권을 구현해나가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터내규가 제정이 되고 시행되어온 기간을 돌아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어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제정과 안착화의 시간을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규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식의 반응,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규에 위반되니 조심하라는 식의 회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년 전과 지금의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간에, 세터 자리에서 성폭력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자체적으로 조심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막아낸다는 내규의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행 몇 년을 거치면서 새터내규의 존재 자체가 학생 사회 내부의 인식 속에 점차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체감정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코 연세사회 내부의 성폭력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의식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내규 시행 4년 차에 들어선 올해에는 새터내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차 당위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장의 소소한 예방들에 가능성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더디게 변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퇴보해버릴 가능성 역시 농후하기 때문이다.

2003년 내규 개정

2003년 개정될 새터 내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의 구체화·세분화이다. 기존의 새터 내규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으로 구분했던 것에 비해 내규 개정안에서는 새터 기간 동안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활동과 연관시켜서 술자리,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생활 공간, 놀이 자리, 신체적인 성폭력, 언어적인 성폭력, 적대적 환경 조성, 사이버 공간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성폭력 사례에 있어서 새터 내규가 제정·시행되었던 2000년도 이후의 새터 기간에 벌어진 성폭력 사례를 추가하였고, 시기적으로 오래된 사례는 삭제하였다.

새터 내규가 시행되는 동안에 많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 규정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도 기존의 내규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새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학생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아닌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정하였다.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서

새터 내규가 제정되고 이제까지 시행되는 동안 학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강제적 규약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규약- 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터 내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며, 그러한 만큼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인식이 많은 학우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 2003년 새터 내규의 개정이 '내규에 위반되니 조심한다'라는 식의 내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새터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